

# 전남도 노인일자리 2044억원 투입

### 을 공익형 등 5만6948개 창출

### 지난해 비해 7.6% 늘어

### 경제활동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

전남도가 어르신들의 소득지원과 건강유지 및 대인관계를 통한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 자리를 확대한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5만 6948개로, 지난해(5만2938개)보다 7.6% 늘었고 예산도 145억원이 증가한 2044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민간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민간 기업에 노인인력을 파견하는 취업알선형으로 나뉘 추진한다.

공익활동형엔 5만788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 노인 등 가정을 방문해 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하는 노-노 케어,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봉사하는 취약계층 지원, 취미생활지도, 체험활동을 하는 경륜전수 활동, 지역사회 환경 개선,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공공시설 봉사 등이 추진된다.

사회서비스형은 보육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원, 노인시설 및 장애인 시설 업무보조 등을 추진하며 3492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장형 일자리는 식품 및 공산품 제조·판매, 소규모 매장 운영, 유흥경지를 활용한 농산물 등 공동 경작·판매, 택배 물품 배송,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이 포함되며 2038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630개 사업을 추진하며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파견하고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밖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남형 노인일자리사업 250개 ▲농산물 공동생산, 식품 제조 등 소

일거리를 통한 소득 창출을 위한 경로당 공동작업장 34개소 ▲시장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투자비(사업단 개소당 3000만~5000만원) 지원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촉진 지원 등 일자리도 지속해서 만들 계획이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적·체계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수행기관 79개소에 전담인력 385명을 투입,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관리할 방침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어르신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과 사회구성원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노인일자리사업 민선 8기 추진계획으로 지역특성(농어촌)을 반영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확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양질의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노인일 자리를 지속 발굴해 2026년까지 6만7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美 세계가전전시회 참관단 파견

### 큐아이티 등 5개 기업 함께 참여

### 세계한상대회 성공 업무협약도

전남도가 도내 혁신기술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23 세계가전전시회(CES) 참관단을 파견했다. 참관단은 박창환 정무부지사가 이끌고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는 (주)큐아이티, 교육용 드론을 생산하는 (주)휴인텍, 태양광 유지보수 서비스를 하는 (주)더블유피, (주)티이엠펙,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하는 (주)누리플렉스 등 5개 회사가 참여했다. 전남도는 이번 참관을 통해 글로벌 신기술을 경험하고 2024 세계가전 전시회에서는 전남도관을 설치해 에너지·반도체·우주항공 등 전남 전략산업 기업들과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2023년 세계가전전시회에서 전남도내 기업으로는 (주)휴먼아이티솔루션과 (주)파루인쇄

전사가 혁신기업으로 참가했다. 휴먼아이티솔루션은 메타버스 기반의 치매 예방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인 '티온케어'를, 파루인쇄전자는 인쇄회로 기술을 활용한 잉크온열제품, 전자차 히터 제품을 출품하기로 했다.

박 정무부지사는 "2023 세계가전전시회(CES)'를 참관한 뒤 9일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제21차 세계한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에는 남도장터유에스(US) 및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사와 해외의 상설판매장 운영사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남 우수 농수산물 수출을 적극 홍보했다. 박 정무부지사는 "신기술 향연이 펼쳐질 세계가전 전시회에서의 최신 기술 트렌드 파악은 반도체, 우주항공, 에너지 등 전남 전략산업 육성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또 세계한상대회 성공 개최, 전남 농수산물 수출 확대 등 세계로 뚫어주는 전남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어선건조 국내외 시장 주도권 확보 나선다

### 전문가 간담회 선점 방안 등 논의

### 고흥 도양읍에 지원센터 구축키로

전남도가 고흥 도양읍에 전국 최초로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구축해 어선 건조업 등록제, 어선건조 단지, 엔지니어링 기반 마린 등 국제표준화로 국내외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어선건조 정부정책 방향과 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학, 국책연구소, 어선 검사 기관, 수협중앙회, 민간연구소, 어선 건조업체, 고흥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간담회에는 ▲어선 건조 정부정책방안 ▲어선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조선소 실태 및 문제점 ▲어선 건조 국제표준화 선점 ▲어선 건조 밸류체인 구축 시급성 ▲사업 예정부지 조기 확보 방안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규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어선어업 현황 ▲해상풍력단지 내 어선 안전조업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올해 세부적인 설계도 마련을 시작으로, 수조시설, 성능계측장비



등 기술지원시설, 3D 프린터, 몰드제작시설 등 생산지원시설, 이동식크레인, 트레일러 등 물류지원 시설, 연구소, 검사소, 설계소 등 관리기반시설 등 어선건조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다.

박영재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선 건조업은

지금까지 야산, 바닷가 건조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어선 건조 밸류체인 구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전문가 분과위 운영을 통해 해수부 정책과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전남도 어선어업정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거점지원공간 조성·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전남도 청년 붙잡고 불리들이는 시책 본격화

### 순천·무안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 복지카드 등 지원시책 대폭 확대

전남도가 도내 청년들을 붙잡아 수도권 등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고, 외지에 나간 지역 출신 청년이나 타 지역 출신 청년들이 도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칠 여건 마련을 위해 청년 거점공간 조성, 소통 프로그램 운영,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전국 최초 대규모 청년 종합지원공간인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순천시와 무안군을 거점별 건립 대상지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기본·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 등 구체적 건립 절차를 진행해 사업비 48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청년문화센터는 창업 인큐베이터, 청년 점포, 공유 오피스, 예술창작실, 전시·공연장, 체육·놀이시설, 버스킹 공연장 등 청년이 원하는 모든 시설을 갖춘 통합공간으로 구성된다.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컨설팅 등 청년의 도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2월부터는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해 청년을 호남인으로서 자존과 자긍심을 가지고 전남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리더로 성장할 인재로 양성한다. 연 3기수, 기수별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분야 최고 권위자를 초청한 교육과 종합 청년 플랫폼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청년공동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청년문화복지카드 등 청년 지원시책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의 사회참여 유도과 청년 주도의 정착 환경 마련을 위해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전남형 청년공동체'는 133개 팀에서 200개 팀으로 확대 육성한다.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 중인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은 4400부부에서 5000부부로 확대했으며, 도내 모든 청년부부가 혜택을 받도록 거주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전남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20만원' 지원도 대상 연령을 만 21세부터 만 28세인 것을 만 19세부터 28세까지로 늘렸다.

전남도의 다각적인 청년지원시책은 최근 급속한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년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은 전남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전남에서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도는 전남형 청년마을 5개소 조성, 전남형 청년공동체 133개 팀 육성,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20만원 지원 등 새 시책을 발굴·추진해 청년 삶의 질 향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 하세요

### 전남도, 19일까지 접수

### 200개 기업·단체 116억 지원

전남도가 오는 19일까지 15일간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 안정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2023년 상반기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뉘 이뤄진다. 200개 기업 및 기관·단체에 116억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신규 고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를 일부 지원(40~70%)하며, 사업개발비는 기업의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상품 개발, 품질 개선 등에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역특화사업은 사업모델 발굴, 기업 홍보, 판로 개척 등 사업에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고도화 지원 공모를 3월께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추가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병남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민선7-8기를 거치면서 높아진 사회적경제기업의 관심을 반영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등 육성에 힘쓰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다양한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